

카자흐스탄 위구르족 종족현황 및 선교전략

KFR 2기 훈련팀

제 1장  
KFR 소개

## 1 KFR 소개

Kazakhstan Field Research team은 한동 대학교 아시아 지역 연구소 산하 학생 단체로서 CFR(China Field Research), SFR(South East Field Research), IFR(India Field Research), MFR(Middle east Field Research), PFR(Pacific Field Research) 등의 팀과 함께 세워진 지역 현장 조사 팀이다.

## 2 Vision

**King's Kids-**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Matthew 6:10)

→ 우리의 왕의 자녀로 그 땅과 민족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공동체이다.

**Following Hi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Matthew 4:19)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따라오너라'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는, 사람을 낚는 공동체이다.

**Family of God-** From Him the whole body, joined and held together by supporting ligament, grows and builds itself up in love, as each part those its work. (Ephesians 3:16)

→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이다.

**Remaining in Him-**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given you. (John 15:7)

→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뜻을 따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공동체이다.

## 3 Mission

**Worship God-**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Preaching Gospel-**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Research-** 우리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마을과 민족을 찾아 리서치하고 교회들과 여러 중보기도자들에게 보고한다.

## 4 연혁

2005년 3월 말 한동대학교를 방문하여 저녁 채플에서 말씀을 전해주시신 해밀톤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인 김혜택 목사님과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 팀을 통하여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지역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개척사역을 할 학생들이 일어났다. 중앙아시아선교협의회에서 추진중인 카자흐스탄 내에 한동대학교와 같은 크리스천 대학교를 설립할 프로젝트에 아시아지역연구소가 동참하면서 대학설립을 위한 리서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 Kazakhstan Field Research team이 구성되었으며, KFR은 기존에 아시아지역연구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HGFR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1기가 활동을 마치고 2기가 시작되면서 KFR은 새롭게 소수민족 리서치와 마을 복음 전도에 집중하게 되었고, 현재 2기가 2005년 2학기 훈련과 방학 중 10일 합숙, 3주간의 아웃리치와 10일간의 보고서 작업을 마치고 3기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

## 5 구성

- (1) 지도교수: 김학철 공간시스템공학부 교수
- (2) 협력간사: 박선아 아시아지역연구소 연구원
- (3) 2nd Vision team: 김혜정(00. 디렉터)  
권선형(05. 기장)  
강주미(05. 훈련생)  
이명혜(05. 훈련생)
- (4) 2nd Training team: 조해은(02. 디렉터)  
정하영(05. 기장)  
전민영(02. 훈련생)

## 제 2장 일정

## 1 학기 중 10주 훈련 및 합숙 일정

### 1) 10 주 훈련

#### (1) Vision team

#### (2) Training team

	날짜	강의	강사
1 주	9/23	크리스천의 역사 인식 FR Spirit (1 차 캠프)	오성훈 목사 마민호 소장
2 주	9/29	선교사적 관점에서 본 지역연구와 리서치	마민호 소장
3 주	10/4	리서치와 전도(전도의 실제)	김학철 교수
4 주	10/13	리서치 기법 1	최성욱 간사
5 주	10/20	리서치와 영적도해	김바울 선교사
6 주	10/27	권리포기와 재정관리	김혁수 목사
7 주	11/4	한국교회와 선교 (2 차 캠프)	이용남 목사
8 주	11/10	리서치와 중보기도, 영적전쟁	이광임 사모
9 주	11/17	Blessing Handong 참식	온누리 교회
10 주	11/24	공동체	김철구 선교사
11 주	12/3	KFR 러브피스트	

### 2) 기도회

월	화	수, 토	목	금
열방기도회	양육모임	KFR 기도회	FR강의 후 기도회	HGFR 전체예배

### 3) 10일 합숙 일정

부록에 별첨

## 2 리서치 기간 일정

날짜	Vision team	Training team
12/29	17:50 인천공항에서 출국 (현지) 21:50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으로 입국 칠릭 교회로 이동	
12/30	통역자 및 현지 사역자와 오리엔테이션	
12/31	칠릭 교회 어린이 사역	
1/1	주일예배, 성도 가정 방문	
1/2	츄 교회로 이동, 도착	가라뚜룩으로 이동, 리서치 시작
1/3	츄 교회 오리엔테이션, 성도들과 교제, 사우나	고려인 집 방문 전도사님 인터뷰(카라뚜룩 마을)
1/4	(선형, 주미) 어린이 사역 (혜정, 명혜) 톨레비- 마리아 할 머니, 쿠르드 가정 방문	위구르인 가정 방문(다일 아저씨)
1/5	(명혜, 주미) 어린이 사역 (혜정, 선형) 톨레비- 마르하밧 아주머니, 이민자르 아저씨 방문	삿다로프 학교 방문-교장선생님 인터뷰 병원 방문 - 내과 의사 인터뷰
1/6	레닌스키 로자 성도 방문, 어린이 사역 및 복음 전도	위구르 가정 방문- 가라뚜룩 부 녀회장 인터뷰 위구르 가정 방문2- 라불 아저씨
1/7	츄 아라이사슬기나 할머니 방문	제스켄수 마을 방문- 카작인(볼 랏) 집 방문
1/8	츄 교회에서 주일 예배, 베르릭 스비에따 아주머니 방문 가정 예 배, 루다 집사님 댁에서 저녁식사	주일예배, 칠릭으로 이동
1/9	부별 활동 및 점검, 중보기도	위구르 청년들과 교제 위구르 가정 방문- 쿠루반 아이 트(무슬림 명절) 알아보기
1/10	(선형, 주미) 이고르백 성도 방문 (혜정, 명혜) 미트리 아저씨 방문 하여 복음전도	위구르 청년 싸이다 집 방문
1/11	톨레비- 올라 방문	위구르 청년들과 교제

1/12	톨레비- 엘자 할머니, 레라 할머니 댁 방문	사우나, 휴식
1/13	감사의 밤- 사역자, 통역집사님, 성도들과 교제, 알마티로 이동	칠릭 교회 성도들과 예배 및 교제
1/14	(비전팀, 훈련팀) 알마티 강 선생님 댁에서 모임 모임집 형제 자매들과 인사 및 교제 청년들 겨울 캠프 진행	
1/15	주일예배, 모임집 형제 자매들과 소풍가기(메데우) 강 선생님 댁에서 저녁식사	
1/16	주호라 아주머니(모임집 자매) 생일 잔치 아주머니들과 교제, 간증 시간	
1/17	스비에따 아주머니(모임집 자매) 집 방문	
1/18	영어 교육 준비, 선생님 차 닦기, 문서부 활동 규젤(모임집 자매) 집 방문	
1/19	알마티 시내 탐방 현지 사역자들 기도회에 참석 (현지) 23:15 카자흐스탄 출국	
1/20	(한국) 07:50 한국 입국, 17:10 한동대학교 도착	

### 3 보고서 합숙 일정

날짜	일 정
1/20	학교 도착, 휴식
1/21	부별 보고서 작성
1/22	주일 예배, 영화관람(나니아 연대기) 간증문 작성
1/23	간증문 완성 비전팀- 사역 보고서 시작 예배부- 부별 보고서 완성
1/24	비전팀- 사역 보고서 작성 훈련팀- 조사 보고서 시작 보고예배
1/25	비전팀- 사역 보고서 완성 훈련팀- 조사 보고서 작성



	예배부- 영적 보고서 완성
1/26	훈련팀- 조사 보고서 완성 비전팀 귀가
1/27	보고서 완성, 훈련팀 귀가

# 제 3장 조사 보고서

- 카자흐스탄 내 위구르-

## 1 서론

### 1) 조사목적

- (1)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알아 주님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에게 속히 복음을 전해지는 일에 동참하기 위함이다.
- (2) 위구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 위구르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다.

### 2) 조사방법

- (1) 인터넷을 이용하여 카자흐스탄과 위구르의 일반적인 개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였다.
- (2) 중국 접경지대에 밀집해 있는<sup>1</sup> 카자흐스탄 위구르 마을 중 한 마을에 들어가 현지인 가정이나 공공 기관을 방문하며 인터뷰 하였다.
- (3) 칠릭 교회 주변에 있는 위구르 청년들과 교제하며 인터뷰 하였다.
- (4) 도르카스 공동체 모임 집에서 5일간 함께 생활하며 위구르 청년, 아주머니들과 교제하였다.

### 3) 조사범위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 중국 접경 지대에 있는 실크로드를 따라 생성된 마을의 위구르 민족(칠릭, 카라뚜룩, 말라바이)

## 2 본론

### 1) 카자흐스탄 개관

#### ① 일반개요

- 국명: 카자흐스탄공화국(Republic of Kazakhstan)

---

<sup>1</sup> 카자흐스탄 내에 약 30만의 위구르인이 살고 있으며 그 중 약 85%가 중국 접경 지대인 동쪽에 밀집해 있다.

- 국기: 1991년 독립 후 제정  
고요와 평화를 상징하는 푸른 바탕에 그려진 태양과 독수리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자유를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며 왼쪽 무늬는 전통문양이다
- 위치: 중앙 아시아의 북부에 있는 나라 - 북쪽은 러시아연방, 동쪽으로 중국, 몽골, 남쪽으로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접하고, 서쪽으로 카스피해(海)에 면한다.
- 면적: 272만 4900km<sup>2</sup> (면적 세계9위, 한반도의 12배, 한국의 27배)
- 인구: 1,495 만 명(2004.1)  
- 인구밀도: 5.4명/km<sup>2</sup>(2003)
- 120개의 민족: 카자흐인(53.4%), 러시아인(30%), 우크라이나인(3.7%), 독일인(2.4%), 타타르인(1.7%), 우즈베크인(2.5%)의 순이며, 한민족도 9번째로 0.6%인 약 10만 명이 거주한다.
- 평균수명: 남성(60.5세) 여성(71.5세)

## ② 정치

- 수도: 아스타나 - (Astana인구: 약51만 명)  
※ 이전수도: 알마티(Almaty 인구: 약120만 명)
- 행정구역: 2개 특별시(Astana, Almaty) 14개 주
- 공화제: 독립 후에도 공산당을 재편성하여 간판만을 바꾼 채 직접선거의 대통령제를 도입하여 공산당 제1서기(나자르바예프)가 당선되는 등의 형태로 지도부가 계속 집권하고 있다. 이러한 계속성은 이행기의 정치적 혼란을 막는 데 큰 의미가 있으나 과감한 변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1991년 12월 독립 이후 나자르바예프(Nazarbayev)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적극적으로 경제개혁 등에 몰두하여왔다. 1998년 제정된 헌법에서 대통령 임기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되고 1999년 1월 실시된 조기 대통령선거에서 나자르바예프가 총 투표자의 79%의 지지로 재선되었다.

## ③ 외교

- 현실외교: 경제, 정치, 군사의 면에서 일관되게 러시아연방과 긴밀한 제휴관계를 유지
- 독립일: 1991.12.16

## ④ 언어: 공용어 카자흐어(실제로는 러시아어가 공용어의 역할)

## ⑤ 통화

- 통화: 텡게(Tenge)
- \$1=130 텡게 (2005.3)

#### ⑥ 경제

- 국내총생산(GDP): 301억불(2004.1-9월간)  
2004년도 GDP 성장률(잠정): 9.1%  
2003년도 GDP: 294억불  
2003년도 1인당 GDP: \$1,970
- 고도의 경제 성장 - 카자흐스탄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시장경제 정책의 지속 추진과 카스피해 원유개발 등 원유가스 산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2000년 이후 10% 수준의 고도 경제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경제 성장의 원인 - 원유 등 풍부한 지하자원 및 카스피해 원유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자본의 투자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
  - 카자흐스탄 정부는 원유자원 매장량을 세계 7위 수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LA Times는 미국 추정매장량의 5배에 달한다고 2004.5 보도
  - 우라늄, 금, 은, 구리, 아연, 망간 등도 세계 10위내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며, 알루미늄, 티타늄, 크롬, 니켈 등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장량을 보유
  - 상기 신용평가기관은 카자흐스탄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카자흐스탄 경제는 당분간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

#### ⑦ 농업

카자흐스탄은 원래 유목을 생업으로 했으나 목축과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500km에 이르는 이르티슈카라간다 운하가 건설된 후, 오비강 좌안의 지류인 이르티슈강의 물이 카자흐스탄의 중앙부로 관개되어, 1996년 현재 경지 면적은 32만 6000km<sup>2</sup>이고 관개농지의 면적은 2만 2000km<sup>2</sup>이다. 그 결과 독립국가연합(CIS)에서 우크라이나 다음가는 곡창지대로 되었다.

#### ⑧ 산업 분포: 농업 - 12% 공업 - 30% 서비스 -58% 노동력 - 전체690만

#### ⑨ 기후

- 대륙성 기후: 덥고 건조한 여름과 비교적 따뜻한 겨울이 교차한다. 북부가 엄동인 시기에 남부의 산록분지에서는 과수원의 꽃이 피는 등 기온의 차이도 상당하다.
- 월 평균 기온: 1월 평균기온은 북부에서 -18℃ 전후이고, 남부에서는 -6~-2℃이며, 7월 평균기온은 북부에서 20~22℃이고, 남부에서는 26~30℃에 이른다.
- 강수량: 강수량은 특히 적어서 전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250mm 내외이나, 남쪽으로 갈수록 적어지며 사막에서는 100mm 미만이고 산악지

역에서는 1,000mm에 달하는 곳도 있다. 우계는 3~4월경이며 이 기간 중에 일년 강수량의 대부분이 내린다. 아랄•카스피해의 대평원을 두란 저지라 하는데, 강수량이 적어 대부분 스텝(短草草原) 또는 반사막을 이룬다.

#### ⑩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러시아 정교
  - 수니파 이슬람(약 40%), 러시아 정교(약 26%), 개신교(1%)
- 기독교: 러시아인의 지하교회를 기반으로 출발한 개신교의 선교활동은 한국인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 사역자들의 활동에 힘입어 놀라운 성장을 경험. 주요 도시와 지방에 카작인들의 교회가 개척

#### ⑪ 역사

- 8세기 무렵 - 터키족 거주
  - 13세기 - 칭기스칸이 통치한 킵차크 한(汗)국에 예속
  - 15세기 - 카자흐 민족 형성 1465년 자니베크와 기레이 술탄이 세움
  - 1860년대 중엽 -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완전 통합
  - 1917년 3월 - 카자흐스탄에 소비에트 권력이 수립
  - 1920년 8월 - 국가 중앙 기관 결정에 따라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자치 공화국 창설에 관한 포고령이 서명
  - 1936년 -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건설되었다.(소련 구성 공화국의 하나)
  - 1990년 4월 - 카자흐스탄 최고인민회의에서 나자르바예프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에 피선
  - 1990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소련 붕괴 과정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등과 함께 소련 체제를 유지하려 노력
- 결국 카자흐스탄은 1991.12 Belovezhsk 협정 체결로 소련 체제의 와해가 기정 사실화된 직후 동년 12.16 소련 구성공화국중 가장 늦게 독립을 선언하고 동년 12.21에는 독립국가연합(CIS)에 가입
- 나자르바예브 대통령의 정국주도 지속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의회와 국정전반을 완전 장악하고 야당세력이 아직은 정권에 도전할 만한 능력과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정국주도는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카자흐스탄 독립 이후 주요 일지

1991.10.25	카자흐스탄 공화국 주권선언
1991.12.1	대통령 선거(나자르바예프 공산당 제1서기 당선)
1991.12.16	독립선언
1991.12.21	독립국가연합(CIS) 가입

1992.3	UN 가입
1993.1	헌법 채택
1995.4.29	대통령 임기연장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2000년까지 임기연장)
1995.8.30	신헌법 채택
1997.12.10	아크몰라(Akmola?현 아스타나)로 수도 이전
1999.1.10	대통령 선거(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당선)
1999.10.12	토카예프(Tokayev) 내각 출범
2002.1.29	타스마감베토프(Tasmagambetov) 내각 출범
2003.6.13	아흐메토프(Akhmetov) 내각 출범
2004.9.19	하원선거

## ⑫ 사회

- 다민족국가: 국민성을 확일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움.
- 도시 인구 비율: 55.8%(2001)
- 주요도시: 알마티, 카라간다,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첼리노그라드

## ⑬ 대한관계

- 1992.1 수교 - 한•카자흐간 경제교류는 카자흐의 개혁•개방정책 추진에 따라 꾸준히 확대되고있음.
- 인천 - 알마티 간 정기전세기 노선(아시나아항공 및 아스타나항공 각 1회)이 주2회 운항하고 있으며, 항공협정이 체결될 경우 정기노선으로 승격될 것으로 예상됨.
- 고려인 - 약 10만 명(100,200명 2004.1월 기준) 소련정부가 연해주 지방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1937년에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 재외국민 - 2005.1월 현재 약 1,000여명(1992년 수교 이후 무역업, 투자, 유학, 선교 등 목적으로 입국한 장기 체류자와 그 가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카자흐란 이름은 '유랑자' 또는 '독립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유를 사랑하며 관대한 성품을 가진 민족이다.

## 2) 위구르 민족 개관<sup>2</sup>

### (1) 일반개요

#### ① 종족명: 위구르(Uighur)

<sup>2</sup> <<http://www.uygurpeople.com/tribe/ug-profile.htm>>

- ② ‘위구르’의 의미: 연합, 동맹
- ③ 인구: 약 1,150만 명(중국-약 1,000만 명, 중앙아시아-약 100만 명)<sup>3</sup>
- ④ 언어: 위구르어
- ⑤ 주요종교: 이슬람교
- ⑥ 기독교 인구: 1%미만
- ⑦ 분포

대다수의 위구르 민족은 중국의 북서부에 위치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산다. 1990년도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한족이 대량 이주해 옴으로 49%를 차지하지만 신장 지역 총인구 15,155,788명의 47%를 위구르족이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도 위구르 민족이 살고 있고 중국의 다른 지역과 터키와 아프가니스탄에도 소수의 위구르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다.



#### ⑧ 정체성

위구르 민족은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조상 때부터 살아 내려온 지역에 따라 거의 특징 지워지고 있다. 위구르어와 신장 지역은 모든 위구르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라고 여기는 이슬람교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위구르 인들이 지니고 있는 강한 정체성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위구르 인들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여러 종교 신앙을 추종했던 적이 역사에 있었다. 1930년대까지 신장에 살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의 이름을 따라 불러 졌는데 주로 사용된 민족 명칭은

<sup>3</sup> 어떤 위구르 사람들은 중국측의 통계가 상당히 과소평가 되었다며 중국 대륙의 위구르 인구가 1000만 ~ 2500만 명 정도이고 구 소련 지역에 1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투르크족" 혹은 "투르크스탄 사람"이었다. "위구르"란 명칭은 타림 분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을 "위구르족"이라고 불렀던 타림 정부로부터 또 다시 이주해온 사람들을 소비에트 정부가 "위구르"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불렀다. 위구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특징짓는 여러 두드러진 요소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이슬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점과 카작과 키르기즈등의 유목민과는 달리 정착 생활을 유지하며 터어키 계통의 특색과 분명한 터어키계 방언을 지니고 있는 점이다. 오늘날의 위구르 인들은 "위구르인이라면 당연히 무슬림이지요"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들의 종교적인 전통 역시 위구르 문화와 떼어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이런 전통의 주요한 부분을 예로 들면 위구르 인들은 돼지고기로 된 어떤 것도 먹거나 요리하지 않는다. 신장의 위구르인들은 수년 동안의 중국과 소비에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전통을 강하게 유지해 왔다. 대개의 위구르인들은 중국 식당이나 중국 가정에서 결코 음식을 먹지 않는데 그 이유는 돼지고기로 인해 더럽혀졌다고 여겨왔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위구르인과 한족이 같이 공부하는 학교에도 식당이 따로 구분되어 있고 기숙사도 대개 구분하여 사용한다. 할례의식, 결혼식, 장례식, 공휴일 등의 전통적인 종교 의식과 축제 외에도 위구르 문학, 음악, 춤 등의 전통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다. 비록 북쪽 지역에 사는 많은 위구르 인들이 이름만 걸친 무슬림이고 라마단 금식 절기와 금주 등의 종교 규례를 어기지만 이러한 문화 전통이 이들을 강하게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한다. 위구르인은 신장에 거주하는 터어키 계통의 카작, 키르기즈, 우즈벱족과 페르시아 계통의 무슬림인 타지크족과 문화적인 유사성을 많이 지니고 있다. 위구르족과 가장 유사한 민족은 우즈벱족인데 이 두 민족의 언어는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같은 뿌리이다. 이런 언어적인 유사성 때문에 우즈벱키스탄의 필가나 계곡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위구르 인들은 우즈벱 문화에 동화되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에 사는 위구르인은 문화적으로 구별된 채 남아 있다.

#### ⑨ 역사

위구르 민족의 민족의 기원은 8세기 몽고 스텝 지역에 위구르 제국이 건립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제국은 오르콘 강의 카라발가순에 중심을 두고 키르기즈족이 침략하여 정복했던 AD 840년까지 지속되었다. 그 이후 위구르족 대부분이 서쪽으로 이주해와 타림분지 주위의 오아시스에 흩어져 정착하게 되었다. 위구르족은 원래 정령 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타림 분지로 이주하기 전에는 마니교와 접촉이 되어 그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다. 반면에 타림분지로 이주해와 있는 동안에 불교와 접촉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였다. 네스토리우스 기독교 종파는

AD631년경 이 지역에 들어와 이미 교회를 세웠고, 많은 위구르인들이 이 신앙을 받아들였다. 마르코 폴로도 AD1271년에 카쉬가르를 지나 여행하면서 보고하기를 이 당시에 여전히 네스토리우스 교회들이 있었다고 했다. 타림분지의 서쪽 오아시스 지역에 살던 위구르 사람들은 사마르칸트와 부카라 등지의 투르크족에게 끼친 아랍의 영향으로 인해 AD 950년경에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타림분지의 동쪽 지역(투르판, 하미)에 살던 위구르 사람들은 15세기 경이 되어서야 이슬람교로 완전히 개종하였다. 10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차카타이 몽고 제국이 신장을 다스렸는데 이때 많은 위구르 사람들이 행정지도자가 되는 등 주요한 직책을 맡았다. 그런데 1754년에 청나라가 몽고를 물리치고 이 지역을 다스리다 1884년에 신장을 중국의 한 지방으로 공포했다. 1910년 청나라의 몰락 이후 동투르케스탄 위구르 공화국이란 명칭으로 일리 주변에 짧은 기간 건립되었으나 1949년 공산주의에 의해 붕괴되고 중국의 한 주로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2) 경제

위구르 사람의 대부분은 농업에 종사하여 포도, 메론, 수박, 배, 사과, 석류, 아몬드, 면화, 벼, 밀 등을 재배한다. 또한 포도, 살구, 메론 등을 말려 팔기도 하고 동물가죽을 팔곤 한다. 어떤 이들은 칼, 카펫, 모자, 가죽부츠, 실크 등 전통 수공업품을 만들어 팔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조업, 광업, 기름 굴착업, 무역업, 운송업 등의 사업을 한다. 위구르인들의 소수만 국내외의 무역에 종사한다.

(3) 생활조건

이들은 매끼 육식을 하고, 매일 낙농품을 먹는다. 우유와 함께 차를 마시기를 좋아하고, 이들은 주식으로 옥수수나 밀가루로 구운 빵이나 국수도 먹는다. 전형적인 위구르의 가옥은 사각형 모양으로, 곡식과 과일을 말리기 위한 평평한 지붕에 채광창을 가지고 있다. 침대 틀은 바닥 쪽이 낮게 벽돌로 만들어져 있어서 따뜻하게 데울 수 있으며, 잠을 잘 뿐 아니라 앉을 때에도 사용한다. 흔히 벽에 거는 카펫으로 집을 장식하곤 한다.

(4) 문화

수세기 동안 음악과 춤은 위구르 문화의 주요한 부분이었다. 위구르 민족의 가장 유명한 음악은 단편들을 모아 편집한 "십이무캄"(Twelve Mukams)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연주하면 20시간이 소요된다. 수많은 전문적인 무희들이 있고 위구르 소년, 소녀들은 전통 춤을 배우면서 자란다.

(5) 종교

이슬람은 10세기 이후로 위구르의 지배적인 종교가 되어왔다. 과거에는 단지 명목상으로만 무슬림이었으나, 현재 그들 가운데 어느 정도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오늘날 모든 카자흐스탄의 위구르인들은 사실상 하나피파(수니파의 4학과 중의 하나로 시대에 따른 율법의 변경을 인정하는 파) 이슬람교도라고 말한다.

(6) 기독교 상황

무슬림으로서 이들은 기독교도는 적이라고 교육받는다. 성경은 이미 이들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이들의 언어로 방송되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과 영화 예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거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다.

(7) 기타

몇 세기 동안 위구르족은 중국과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했다. 이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거주하며 중국물건을 수송하는 대상으로 일해왔다. 이들 주거지의 전략적인 위치는 이들로 하여금 동양과 유럽 사이의 "중개상인"으로 만들었다.

### 3) 가라투룩 마을(위구르 마을) 조사내용

(1) 개요

① 지역개관

가라투룩 마을은 카자흐스탄 남동쪽 국경선과 가까이 위치한다. 알마티에서 동쪽으로 차로 한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로 알마티에서 칠릭으로 가는 길 선상에 있다. 여기서 칠릭까지는 차로 20분정도 걸린다. 실크로드가 지나가는 마을이고 중국 국경과는 세시간 거리에 있다. 멀리 천산산맥이 보이고 마을에 산은 없으며 평지여서 논밭이 많고 마가진(마켓)과 병원, 학교가 하나씩 있다.



## ② 종족분포 및 인구

총 인구는 3500~5000명 정도이다. 종족은 위구르 사람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그밖에 카작인, 고려인 등등이 살고 있다. 마을 대표인 아킴은 카작인인데 위구르인과 한번씩 돌아가면서 아킴을 선출한다고 한다. 위구르인은 민족끼리 뭉치는 성향이 강하고 외부인에 대한 경계가 심하다고 한다. 1832년부터 1881년 사이에 중국에서 넘어온 위구르인 30가정이 들어와 지금의 가라뚜룩 마을이 형성 되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전반적으로 그렇듯이 종족간의 보이는 갈등이나 분쟁은 없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내에서 종족적 차별이 존재하여 카작인이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에서 공무원을 뽑을 때나 정치인을 선출할 때도 웬만해서는 카작인을 뽑고, 심지어는 마켓에서 위구르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가도 카작인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오면 그만 두고 나와야 한다.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 가라뚜룩은 아이들을 많이 낳고 이사 오는 가정도 늘어나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sup>4</sup>

- ③ 언어는 위구르어, 카작어, 러시아어를 사용하는데 실질적인 공용어는 러시아어이다. 가라뚜룩은 위구르 민족이 많이 살기 때문에 위구르어도 많이 사용한다.



<위구르 가족>

## (2) 생활환경

### ① 식생활

주로 차이(홍차)와 함께 빵을 먹는다. 버터, 잼과 햄 그리고 치즈와 함께 먹을 수도 있다. 항상 식탁 위에는 차이와 함께 먹을 과자와 사탕 초콜렛이 올라온다. 위구르 전통 차인 ‘아겐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홍차에 우유를 넣고 설탕 대신 소금을 넣어 끓인 차이다. 카자흐스탄 내에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면서 음식 또한 위구르음식, 카작 음식, 고려인 음식이 일반화 되어 민족에 구분 없이 즐겨 먹는다. 위구르 음식으로는 ‘래그만’이라는 국수와 ‘칸반’이라 불리는 요리를 밥에 얹어서 먹는 것, 그리고 ‘쁠럽’이라는

<sup>4</sup> 가라뚜룩에서 3년째 사역하고 계시는 사역자로부터 얻은 정보이다.

기름밥이 있다. 또 **교쉬난(고기만두)**와 주타난(당근만두)도 있다. 음식에는 대부분 기름기가 많다. 기름기만 줄이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들이다. 위구르 민족은 양고기, 말고기, 쇠고기를 먹지만 이슬람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먹지 않는다. 그리고 개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 빵은 집에서 구울 수도 있고 상점에서 손쉽게 그날 구운 빵을 살 수가 있는데 ‘**난**’이라는 위구르 빵과 ‘크랩’이라는 벽돌같이 생긴 빵<sup>5</sup>을 주로 먹는다. 고려인 음식으로는 밥, 국수, 김치, 생선식혜 등이 있고 백김치를 카작 내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 나라처럼 배추로 만든 것도 있고 양배추로 만든 김치도 있다.

이슬람 문화에서는 손님을 잘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손님접대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손님은 가서 차려놓은 음식을 잘 먹는 것이 예의다. 또 차이는 우리나라 밥 그릇같이 생긴 찻잔에 주는데 주인은 찻잔이 비는 대로 다시 채워주는데 두 잔 이상 마시는 것이 예의다. 초대 받은 손님은 방문할 때 선물용 초콜릿을 한 상자 정도 가지고 것이 일반적이다. 방문을 마치고 집을 나오려면 다음에 또 오라는 말을 잊지 않는다. 정이 많고 손님 접대하기를 즐기는 민족이다.



<만두>

<난>

## ② 의복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이 머리에 천을 쓰고 얼굴과 몸을 가리는 옷을 입는 것에 반해 이곳 사람들은 무슬림이라고 하더라도 편한 복장을 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남녀 모두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은 거의 없으며 현대화된 옷을 입는다. 젊은이들은 청바지를 즐겨 입는다. 위구르사람들은 집안에서 ‘매쉬’라는 무릎아래로 오는 부츠 같은 실내화를 신는다. 발바닥은 빨간색이고 몸통부분은 검은색이다. 가죽 같은 재질로 만들어지고 안쪽에 털이 있다. (매쉬는 ‘구원’이란 의미로 바닥의 빨간색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검은색은 죄와 세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슬람이 들어오기 전에 위구르민족이 예수님을 믿었던 흔적이라 할 수 있다.)

<sup>5</sup> 카자흐스탄 국민 빵이라고 부른다.



<매쉬>

<전통 의상>

### ③ 주거

한국처럼 집안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들어간다. 카펫이 깔려있으며 벽에 걸려 있기도 한다. 카펫이 벽에 걸려 있지 않는 집은 가난한 집임을 뜻하고 비싼 카펫을 걸어놓는 것은 부의 상징이라고 한다. 카펫은 예전에 이동해 다니던 위구르 유목생활의 산물이다. 소파와 의자가 있는 곳도 있지만 주로 한국처럼 방바닥에 방석-세 명은 앉을 수 있는 길게 생긴 위구르 전통방석이며 잘 때도 사용하는-을 깔고 앉는다. 난방과 취사모두 석탄을 사용한다. 겨울을 나기 위해 8톤의 석탄(4만 톤계)이 필요하다고 한다. 라디에이터 모양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베헤카라고 불리는 석탄을 떼는 곳에서부터 열이 전달된다. 보지는 못했지만 위구르에도 한국과 같은 구들이 있다고 한다. 전통위구르 집에는 여자방과 남자 방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가족들끼리는 성별에 관계없이 왕래가 가능하지만 외부인의 경우에는 여성의 방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

집집마다 사우나를 할 수 있는 작은 집이 뒷마당에 있으며 거기도 석탄불로 물을 끓여 사우나를 이용한다. 물을 직접 길러서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화장실은 재래식이며 뒷마당에 집 건물과는 좀 떨어져 있다. 겨울이라 바닥이 차갑기 때문에 꼭 실내화를 신어야 한다. 현지인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겨울에는 날씨가 많이 춥고 눈이 항상 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안에서 주로 생활한다.



<벽에 걸린 카펫>





<난방 기구>

#### ④ 직업

가라뚜룩은 밭이 많은데 밀, 벼, 오이, 가지, 옥수수, 고추, 토마토, 감자, 배추, 마늘 같은 농산물과 담배를 재배한다. 소유 땅이 없는 경우는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돈을 지불한다고 한다. 국가소유의 땅을 빌릴 수도 있다고 한다. 담배는 외국으로 수출한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은 담배 재배량이 많기 때문인지 담뱃값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그리고 집집마다 닭, 양, 말, 소, 오리, 개 등을 키운다. 한번 소떼나 양떼가 차도를 지나면 다 지나갈 때까지 교통이 마비된다. 마을이 작아서 일자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차를 타고 주변 마을에 가서 직장을 얻고 있다.

#### ⑤ 가족

평균적으로 한 가정당 5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고 국가에서 아이 많이 낳기를 장려하고 있어서 자녀 한 명당 한 달에 1,800텡게가 보조금으로 나오고 소유한 땅이 없을 경우에는 두당 2,500텡게가 나온다고 한다. 어머니 혼자서 아이 넷을 키우는 어려운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10,000텡게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하며 아들이 가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코란에 남자가 머리라고 기록되어 있어 이슬람 문화에서는 남성 우월사상이 있다.) 위구르 민족은 13살이 된 남자아이를 어른으로 인정해 주어 그때부터 집안일을 돕게 된다고 한다.

예전에는 자녀가 결혼을 하면 남자 쪽 부모님과 함께 살았지만 지금은 결혼을 하면 대부분은 집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가정을 꾸린다고 한다. 자녀 중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에 사는 경우가 많다.

남자들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홀어머니 밑에 자라는 아이들이 많다.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쉽게 가정을 버려서 깨어진 가정들이 많다.

#### ⑥ 위생, 의료

가라뚜룩에는 병원이 하나 있는데 수술을 받으려면 칠릭에 있는 병원으로

가야 한다. 병원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의사들도 배치한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지 않고 무료(외국인 포함)로 진료해 주며 국가가 의사들의 월급과 병원 운영비를 지원한다. 진료과목은 내과, 치과, 소아과이며 치과는 격일로 운영한다고 한다. 안과와 이비인후과는 칠릭에 있는데 1년에 한번씩 이곳에 와서 진료한다고 한다. 하루에 내과의 경우에는 40~50명이 진료를 받는다. 구급차도 있다. (일요일에 휴진)

결핵, 수두, 볼거리 등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천식을 앓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 여름에 식중독은 많지 않고 다른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거의 없다. 대부분이 수명이 다하여 죽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겨울에는 감기 환자가 많고 가을에는 바이러스로 인한 황달현상이 있다고 한다. 별다른 풍토병은 없다.

진료를 받으면 처방전을 주는데 마을에 2개의 약국이 있고 약국에 약을 사 먹는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약을 준다고 한다.

가라뚜룩 병원에서는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필요하다고 한다. 개인병원으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있기는 하지만 돈을 내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진료받으려면 병원에 산부인과가 생겨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있으면 좋지만 국가에서 3명분의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 명의 의사를 더 고용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 ⑦ 물, 식수

물에 석회질이 많기 때문에 차이를 마신다. 물속에 석회를 중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물에 석회가 많다고는 하지만 석회로 인한 별다른 질병은 없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에 사는 사람들은 찬물을 마시면 배탈이 난다고 생각하여 찬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뜨거운 차이가 물을 대신한다. 겨울에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도관이 외부에 있어서 겨울에는 수도관이 얼어붙어 물을 길어와서 사용해야 한다. 이웃에 펌프가 있으면 가서 물을 길어다가 쓴다. 식수는 지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물을 쓰고, 펌프 식 물은 동물을 먹일 때 쓴다고 한다. 이렇게 물을 길어오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물을 아껴서 쓴다. 그래서 인지 수세식 화장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 ⑧ 교통 및 대중매체

차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3~4대를 가진 사람도 있다고 한다. 거의가 유럽에서 온 중고차이다. 농사를 위한 큰 트랙터를 가진 사람도 있었다.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왕래 교역이 활발하다. 국경 출입도 가능하다.

버스는 보통 30분에 한 대씩 실크로드 길로 다닌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택시가 따로 있기는 하지만 개인 승용차도 택시의 역할을 많이 한다. (누구나



원한다면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을 가는 길까지 태워 주고 돈을 받는다.) 큰 물건을 싣고 옮길 때는 차대신 당나귀에 수레를 매어 이동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위구르민족을 위한 소식지 같은 정기 간행물이 있다. (잡지 이름은 위구르어로 ‘은혜’라는 뜻이라고 한다.)



<위구르 소식지>

⑨ 통신

집집마다 전화가 있지만 통화 질이 좋지 않았다. 컴퓨터는 아직 보편화 되지 않았고 대학교에서 컴퓨터를 전공으로 하는 과목이 있다고 한다. 인터넷 역시 거의 보급되지 않았고, 있어도 아직 모뎀수준이라 전송속도가 매우 느리다.

카자흐스탄 내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라뚜룩에서는 시골이라 기지국이 없는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⑩ 정치

마을에는 마을을 대표하는 아킴이 있다. 아킴은 4년마다 뽑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현재 시무하고 있는 아킴을 좋아하진 않아도 아킴으로서 인정은 한다고 한다. 큰 길가에 동사무소의 역학을 하는 건물에 아킴의 사무실이 있다.

위구르족은 그들의 민족 대표를 5년마다 뽑고 있다고 한다. 지금의 지도자는 파르hat 핫사노프라는 사람인데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 제외)에 각각 한 명씩의 위구르 지도자가 있고 이들은 큰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 카자흐스탄에 모인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두 번씩 매시랍이라는 위구르 남자들의 모임이 있는데 일종의 마을회의 같은 것이다. 위구르 사람들의 크고 작은 일을 토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여성도 사회참여가 가능하다 소비에트 때 공산권 영향아래 있어서 그런지 남녀평등사상이 남아 있는 듯 하다. 마을에 부녀회가 있고 부녀회 대표가 있다.

(3) 교육

- 가라뚜룩에 학교는 하나이며 세워진 지는 32년이 되었다.
- 학생은 99%가 위구르 학생이며 러시아어 카작어 위구르어로 공부를 배울 수가 있는데 학생이 원하는 언어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공용어가 러시아어이니만큼 러시아어로 배우는 학생이 제일 많다고 한다.
- 역사, 물리, 세계사, 화학, 수학, 사회 등 12과목을 배우고 특별교육으로 음악과 체육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 아이들의 전학이 가능하고 선생님들은 전근이 가능하지만 전근할 경우 타 학교에서 선생님 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전근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교장은 국가에서 발령받고 국가 법을 어겼을 경우 사퇴하여야 한다.
- 영어교육이 중요하지 않은지 의외로 영어를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
- 1년에 졸업생은 60명 정도인데 그 중 5명은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으로 대학을 가고 15명은 자비로 대학을 가고 나머지 학생들은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한다고 한다. 여자 남자 성비가 반반을 차지하고 여름 방학은 6~8월까지 3달이며 11월 1월 3월에 10일간의 방학이 있다.
- 도시학교는 학비가 있는데 시골학교는 학비가 없다고 한다.
- 대학 등록금은 일년에 \$1000내외이다. 대학은 대부분 도시에 있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면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종합대학(University)와 전문대학(College)로 나뉘어져 있다.

#### (4) 문화

##### ① 명절

‘구르반아이트’라는 무슬림 명절이 있는데 양을 잡아 피를 받고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고 한다. 친척들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춤과 노래를 함께 즐긴다. 이때 무슬림 전도사인 ‘물라’가 코란을 읽는데 이것이 축복기도라고 여겨진다. 구르반아이트 때 친척들은 물론이고 친구들이나 외부인도 방문할 수 있고 그 때 차이를 대접한다. 칠리교회에 있었을 때 구르반아이트 당일에 다른 마을로 땅 밟기 기도를 하러 갔는데, 가는 길에 아이 셋을 둔 어머니와 그의 조카가 마을로 들어가는 차를 얻어 타려고 길에 서 있어서 마침 우리가 가려던 마을이라 그들을 태우고 집까지 바래다 준일이 있었다. 그래서 바로 초대를 받고 그 집에서 차이를 마셨다. 이날엔 특별한 음식인 ‘상자’(밀가루 반죽을 길게 면으로 뽑아 늘어놓은 실타래 모양으로 튀겨낸 과자 같은 것)는 식탁 가운데 보기 좋게 여러 개를 쌓아 놓는다. 이것은 빗줄기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바우르삭’이라는 명절음식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찹쌀도넛 같이 생겨서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겨 만든 음식으로 한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이다.



<상자>

<바우르삭>

## ② 결혼

위구르 민족끼리 많이 결혼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카작인이나 러시아인, 고려인과의 결혼을 한다. 과거에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요즘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한다고 한다. 여자는 20~24살이 결혼적령기이고 남자는 크게 상관없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혼할 때 남자는 여자보다 나이가 많아야 한다. 집에서 결혼식을 하며 친척과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축하하고 음식을 먹고 음악과 춤을 즐긴다. 여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턱시도 같은 양복을 입는다. 결혼식 중에는 결혼 서약서를 읽고 싸인을 하는 시간이 있다. 결혼식 때 3일 동안 잔치를 하게 되는데 첫째 날은 신부 집에서 둘째 날은 신랑 집에서 셋째 날에는 두 집 사람들이 만나서 신부 집에서 신부와 신랑이 친척들에게 선물을 주고 친척들은 신랑신부에게 축하의 의미로 돈을 준다고 한다.

## ③ 장례식<sup>6</sup>

남자는 흰 모자와 흰 허리띠를 띠고 여자는 흰 수건을 쓴다. 무슬림 사역자와 죽은 사람의 친구가 죽은 사람의 살아생전의 일을 말하고 관이 집을 떠나기 직전에 죽은 사람에게 빛이 있으면 아들이 그 빛을 가진다는 서약을 한다. 또 집에서 관이 나가기 전 무슬림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남자들이 관을 지고 나가는데 여자들은 관을 묻으러 갈 때 함께 가지 못하고 집에 남아 있어야 한다. 위구르 사람들은 무덤을 집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땅속에 시신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넓은 공간에 시신을 넣고 벽돌로 구멍을 막은 뒤에 흙으로 덮는다.

## ④ 음악과 춤

위구르 민족은 음악과 춤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리고 특히 리듬을 타며 춤추는 것에 아주 뛰어나다. 명절에 사람들이 모이면 음악을 틀고 춤을 춘다고 한다. 가라뚜룩에서 만난 아주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위구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항상 음악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잔치나 즐거운 행사에 음악이 없으면 그것은 잔치가 아니라고까지 말한다.

<sup>6</sup> 가라뚜룩 부녀 회장 집에서 장례식 장면을 녹화해 놓은 비디오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기타와 비슷하게 생긴 ‘두다르’라는 위구르 전통악기가 있는데 가끔 연주를 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그냥 장식으로 걸어놓기도 한다.



<전통악기 두다르>

(5) 종교

마을의 99%가 무슬림이다. 위구르 민족은 민족 공동체를 중요시 여기고 또한 그들의 생활 문화 깊숙이 이슬람이 자리잡고 있다. 그래서 위구르 민족은 모두 무슬림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들은 무슬림 명절을 지키며, 장례식에도 이맘(무슬림 사역자)이 빠지지 않는다. 마을마다 무슬림 사원이 하나씩 있으며 많게는 세 개도 있다.

(6) 기독교 현황

가라뚜룩에 3년 전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아직 허가 받지 않은 가정집의 형태로 카작인 전도사님 부부가 사역하고 계신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은 타타르족 한 가정(이혼하여 어머니와 아이 넷만 있는 가정)과 카작인 할머니 한 분이다. 개척 초기(2005년 여름까지)에는 이슬람이 아닌 다른 종교를 전한다는 이유로 전도사님 부부를 적대시 하고 핍박하였다. 심지어는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상점에서도 이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는 등 핍박과 따돌림이 심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전도사님 부부가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켜본 마을사람들이 마음을 열어 지금은 가끔 집에 초대를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아졌다. 하지만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다. 다른 한 위구르 가정이 복음을 받아 들였지만 교회를 나가면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하여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전도사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가정예배를 드린다. 마을이 작아서 어느 집에 누가 드나드는지를 사람들이 훤히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외국인인 우리가와 있는 것도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으며 마을 대표인 아킴도 전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셨다.)

가라뚜룩 마을의 위구르 사람들은 외국인인 우리에게도 친절하게 잘 대해 주고 좋은 음식으로 대접해 주었는데,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얼굴 빛이 안 좋게

변한다.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고 닫힌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 4) 주제 보고- 위구르의 새로운 세대

##### (1) 위구르 청년들과의 만남

###### ① 도르카스(Dorcas) 공동체 믿음의 자매들

- 공동체 소개

강릴리아스 선교사님께서 미망인과 생계가 어려운 위구르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자리 지급을 통한 자생력 창출 목적으로 공동체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지금은 현지인 사역자 1명과 아주머니 1명, 젊은 자매 5명 정도가 모임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 세워지는 사역자들

공동체는 대부분 자매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서 신실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매들이 있다. 어려운 가정 환경과 위구르 공동체의 핍박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이 분명한 것이다. 이방인이 아닌 위구르인 사역자가 세워지는 것은 위구르 민족 복음화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조차도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본다.

- 특징

- 위구르 민족은 공동체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내어 놓는 것과도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이 곳 공동체 구성원들은 대부분 알마티 근처의 시골에 집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나 친지들의 시야를 벗어나 자유롭게 모임 집을 드나들 수 있다. 위구르인들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모임 집의 장소도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 장년이나 노년층에 비해 청년들은 무슬림이나 위구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비교적 약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부모님 세대는 공동체에서 배척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그 사실을 드러내기 힘들어 하지만 이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세대이다.

- 중국 위구르 선교 활동<sup>7</sup>

<sup>7</sup> 네 자매에게 선교 여행 간증을 듣는 시간을 통해 알게 된 내용임.

리더로 세워지고 있는 자매들 가운데 M, G, B, G<sup>8</sup> 4명의 자매들이 지난 2005년 7월, 17일간의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그들은 위구르 자치구인 신장의 우룸치→ 카쉬가르→ 호탄을 다녀왔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비록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위구르’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매들이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선교 여행 동안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가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으며, 또한 위험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기차로 이동하면서 만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도 일어났다고 한다.

짧은 중국 선교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자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먼저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위구르에게 속히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실 놀라운 계획을 보여 주셨다.

## ②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

### ● 왜곡된 단결, 공동체 의식

위구르 민족은 민족 연합과 마을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위구르인들에게 ‘개인’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중요한 행사나 사소한 생활도 위구르 공동체를 떠나서 개인이 혼자서 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단결되어 있다.

위구르 민족은 모두 무슬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독실한 무슬림은 많지 않다. 이슬람은 그들의 종교라기보다는 공동체의 단결을 위한 구심점이며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강한 공동체 의식 속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따돌림과 핍박으로 인해 중간에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게 된다.

### ● 물질 만능주의와 음란의 영

위에서 언급했듯이 ‘무슬림’이라는 것은 위구르인들에게 거의 민족적 정체성이자 문화에 가깝다. 사실 이슬람보다 실질적으로 복음을 더 방해하는 것은 ‘물질주의’이다. 대부분의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빈곤’은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예수님을 믿다가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유혹이 오면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고 공동체를 나가버리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sup>8</sup> 보안상 네 자매의 이름을 기재할 수 없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윤리적 기준이나 종교도 무기력해지는 것이다. 현재 카자흐스탄 내에는 위구르인을 포함한 수많은 청소년들이 윤락가에서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인 경로를 통해서도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판다. 밤이 되면 어린 여자 아이들이 노출된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서 호객 행위를 한다. 이것은 물질 만능주의와 함께 음란의 영도 젊은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 (2) 기도제목

- ① 도르카스 공동체에 세워주신 리더들에게 더욱 은혜를 부으셔서 기쁨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주시도록.
- ② 영접한 형제 자매들의 믿음이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물질의 영을 대적합니다.
- ③ 많은 위구르 형제 자매들이 두려움과 핍박을 헤치고 일어나 거룩한 무리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 3 결론

## 1) 선교 전략

### (1) 카자흐스탄 위구르 마을(카라뚜룩)

#### ① 상황

현재 카라뚜룩 마을은 90% 이상이 위구르인들이고 99%가 무슬림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곳에는 개척된 지 3년째 되는 교회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사역자를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만 알고 있으며 교회를 일반 가정으로 알고 있다. 사역자인 전도사님께서는 마을에서 점점 인맥을 넓혀가고 또 점점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계시지만 복음은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② 현지의 필요와 전략

카자흐스탄 시골 마을에는 아직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다. 현재 카라뚜룩 교회에는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설치를 할 줄 몰라 사용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우리 팀이 가서 설치를 해 드렸더니 그 날부터 마을 학생 중 한 명(교인)이 매일 와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컴퓨터 사용의 중요성을 알고 배우려 하기 때문에 교회에 컴퓨터 몇 대를 더 두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많은 젊은이들을 자연스럽게

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 때 컴퓨터 사역자는 카라뚜룩 마을뿐만 아니라 실크로드를 따라 있는 주변 마을들(칠릭, 발타바이, 말라바이 등)을 왔다갔다하며 함께 사역하면 더 좋을 것 같다.

## (2) 도르카스 공동체

### ① 상황

도르카스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강 릴리아스 선생님을 통해 세우신 위구르인 공동체이다. 2000년도에 하나님께서 강 선생님에게 환상으로 비전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 가운데 고아와 과부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계속해서 섬기고 계신다. 이들은 무슬림인 가족들 때문에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금요일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 공동체 지체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임 집에 오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기다린다.

그러나 한 번 공동체에 들어왔어도 많은 유혹들과 핍박으로 인해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인맥을 통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서 구성원은 유동적이다. 현재 공동체 내에는 거의 자매들(아주머니, 청년) 밖에 없고, 남자 어린이와 청소년이 3명 정도 있는 상황이다.

### ② 필요와 전략

최근에 하나님께서 공동체 자매들의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공동체 모임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남자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여자들만 있는 자리에 끼는 것이 부끄러워 모임에 참석하기를 꺼려한다. 그 공동체에 형제들의 친구가 되어 줄 사역자가 한 명만 있어도 그들은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복음을 들을 기회도 생길 것이다.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섬겨 줄 남자 사역자가 필요하다. 사역자는 위구르 말이나 러시아 말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좋다. (특히 이들은 자기 민족 언어인 위구르 말을 사용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강 선생님께서도 위구르어를 사용하신다.)

## 2) 리서치의 평가 및 제언

- (1) 현지에서 도움을 받는 사역자님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경우에 동역하여 주셨던 분들이 나이가 많은 편이셨고, 현지 상황을 잘 아셨기 때문에 협력하기 보다는 우리의 일정을 정하신 후에 일방적으로 통보



하여 주신 경우가 있었다. 이번에는 수시로 우리의 일정을 체크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의 혼란이 있었다.

- (2) 이번 리서치 때에 가려고 했던 곳은 교회가 없는 위구르의 마을 이었는데, 우리가 가려고 했던 곳을 미리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카자흐스탄에 간 이후에 통역해주시는 집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분들께 의논하면서 결정하여 가려고 했었다. 확실하게 가려는 곳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논하며 리서치 할 지역을 선정했을 때,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 때문에 현지 사역자님들의 반대가 있었다. 현지 사역자님들과의 의견충돌을 빚어가며 리서치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고 했던 교회가 없는 위구르 마을에 들어가지 못했다. 리서치를 할 지역을 미리 확실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 이번 리서치를 준비할 때에 위구르 민족과 국경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위구르인들의 지역과 마을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루어 지지 못했다. 학기 중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지역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합숙을 시작한 후에 공부하였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만 알 수 있었다. 그 민족의 역사를 꼭 미리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 1962년과 1930년대에 있었던 일들(위구르 민족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 (4) 리서치를 나가기 전에 위구르 가정을 방문할 경우 마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적절한 조사표를 미리 만들지 못하여서 인터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한 것 같다. 방문하기 전에 그 집의 특징과 분위기를 고려한 후에 질문할 내용들을 준비하여 가는 것이 좋다.
- (5) 집을 방문하기 전에 우리와 협력하는 분들과의 통역을 통해서 주의해야 할 상황을 체크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 (6) 할 수만 있으면 현지에 전통 물건들을 가져오는 것이 좋다. 이번 리서치 때는 선물로 받은 카작 전통 모자와 위구르 전통 모자를 가져올 수 있었고, 메쉬(메쉬)라는 위구르 전통 부츠를 시장에서 구입할 기회가 있었다.
- (7) 리서치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갔던 지명을 한글로 적어오긴 하였지만, 현지어(시릴체)로 표기를 해오지 못하였다.
- (8) 리서치 팀에 미디어부가 갑자기 리서치를 못 가게 되어 다른 사람이 사진을 찍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자료성이 담긴 사진을 많이 담지 못하였고, 사진을 매일마다 컴퓨터에 옮길 수가 없었으므로(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카메라를 인식하지 못함) 이런 것을 대비하여 많은 현지인들의 사진과 자료사진을 담아오지 못했다. 주로 현지인들과의 단체사진을 많이 찍었다. 사진은 양해를 구하고 찍되 현장성과 자료성을 충분히 살려서 찍고 가능하면 현지 인물들을 중심으로 찍어야 한다.
- (9) 현지 사람들과 약속한 것(사진을 빼서 갔다 주겠다는 약속 등.....)은 꼭 지켜

야 한다. 이번에 가락뚝룩과 칠릭에서 찍었던 현지인들의 사진을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 (10) 명절, 결혼식, 장례식 같은 것은 가능하면 참석해서 직접 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장례식과 결혼식은 제일 변화가 느리게 나타나는 풍습 같은 것이다.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장례식과 결혼식은 많이 변하지 않는다. 볼 수 있으면 좋다. 이번 리서치때는 위구르인들의 장례식과 결혼식 녹화비디오를 볼 기회가 있었으나 캠코더를 준비하지 못하여서 영상을 담아오지 못하였고, 위구르 춤도 보았으나 영상으로 담지 못하였다. 미디어부는 캠코더를 준비하여 영상을 담아오기를 권한다.
- (11) 통역해 주시는 집사님들을 통역자로 생각하지 않고 동역자로 생각하면서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며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눈 것이 좋았다.
- (12) 가능하면 우리가 원하는 주제에 맞춰서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만나서 정보를 많이 얻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한다.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번 리서치 때는 마을의 아킴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서로의 시간이 맞질 않아서 만나지 못했다. 아킴을 만나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수치의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

제 4장  
사업 보고서

## 1 사역목적

HGFR의 훈련팀이 현지에서 머무르는 동안 리서치에 중점을 두는데 비해, 비전팀은 리서치보다는 겸손과 섬김 정신을 바탕으로 선교 현장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비전팀의 구성원들은 한동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비전스쿨을 수료하고 HGFR 비전팀으로 들어온 학생들로서 선교지를 처음 경험하는 신입생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선교지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는 낮아짐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팀 안에서는 깨어짐과 연합을 통해 공동체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HGFR 비전팀은, 외부적으로는 연결된 선교지 현장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고 어린이 사역과 복음전도 사역을 감당하며, 내부적으로는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데 그 목적을 두고 활동한다.

## 2 활동 구성원

KFR 2<sup>nd</sup> vision team:

강주미(05. 한동기초학부)- 총무부

권선형(05. 한동기초학부)- 예배부

김혜정(00. 국제어문학부)- 문서자료부

이명혜(05. 한동기초학부)- 미디어부

## 3 사역내용

### 1) 어린이 사역

#### (1) 어린이 사역 준비

어린이 사역을 위해 10일 합숙 동안 풍선아트와 종이 접기를 준비했으며, 찬양 율동을 익혀갔다. 특별히 도르가 모임집의 위구르 청년들과의 교제의 밤을 위해서는 다양한 현지화된 게임을 준비해야 했다.

#### (2) 칠릭

##### ① 소개

실크로드를 따라 중선협이 개척한 4개 교회 중 하나. 4개의 교회 중 알마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마을의 교회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고, 점점 더 호전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현재 고려인이신 브로나 목사님

과 스비에따 사모님께서 계신다.

② 대상

칠릭 교회 어린이 및 자녀를 동반한 어머니

③ 장소 및 시간

칠릭 교회, 12월 31일 14:00-16:00

④ 내용

12월 31일을 맞아 송구 영신 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함께 새 찬양을 배우고, 율동하면서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을 전하고, 새해를 맞아 아이들에게 각자의 기도제목을 적도록 하여 한 해 기도하기로 약속하는 시간도 가졌다. 풍선을 이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새해 맞이 선물로 작은 간식을 준비하여 나누어 주었다.

⑤ 평가 및 제언

- 풍선 아트는 아이들의 높은 참여도를 유도했다. 앞으로도 계속 풍선을 사용한 놀이를 개발시킬 것을 제안한다. 많은 연습을 통해 풍선으로 다양한 모양을 빨리 만들어내는 것이 숙달되어 있어야 실제에서는 아이들의 관심이 분산되지 않고 집중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풍선 완성품을 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직접 풍선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 아이들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곡들을 현지어로 많이 배워가도록 한다.
- 어린이 사역의 경우 연령층에 맞춰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화를 잘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추

① 소개

알마티에서 기차로 약 6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 주변에 톨레비, 레닌스키, 베르릭과 같은 작은 마을들이 있다. 아직 주변 마을들에는 등록된 교회가 없어서 추 교회의 비사리온 전도사님께서 주일날 마을을 돌면서 가정집에서 예배를 인도하신다.

② 대상

추 교회 성도 아이들, 추 옆 마을 레닌스키 마을 아이들

③ 장소 및 시간

추 교회, 1월 4일 15:00-17:00, 5일 15:00-17:00

레닌스키 로자 성도님 집, 1월 6일 15:10-17:00

④ 내용

칠릭에서 아이들과 교제했던 것처럼 함께 찬양하고, 율동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글 없는 책’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종이 접기와 풍선 아트를 하였다. 추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새해 기도제목을 적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레닌스키에서는 로자 성도님께서 우리 팀과 아이들을 위해 기름밥을 준비해주셔서 활동 후에 함께 식사를 하였다.

⑤ 평가 및 제언

- 겨울이라서 함께 모임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만큼 아이들 수가 적었다. 겨울은 방학도 짧고 날씨도 추워서 아이들이 거의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만난다고 해도 거의 성도들 가정의 어린이들 외에 다른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따라서 어린이 사역은 여름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도 볼 수 있다.
- 종이 접기는 현지 아이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면서도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제들을 준비해오도록 한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를 주제로 한다면, 사역팀이 미리 배경그림을 크게 만들어 놓은 후에 아이들이 물고기나, 보리떡 같은 것을 종이접기 해서 만들어 붙이는 것도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데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4) 알마티 도르가스 모임집(정식명: 샬떡릭)

① 소개

알마티 시내에 위치한 모임집으로 강선생님께서 위구르족을 위해 사역하시면서 시작된 곳이다. 재봉을 통해 위구르 여성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사역은 관련된 많은 위구르족 여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많은 이들에게 이 모임집은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예배하고 섬기는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초점을 두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한 해 동안, 정식 교회로 등록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② 대상

샬떡릭 모임집과 관련된 사람들의 자녀들, 청년들

③ 장소 및 시간

도르가스 모임집 1층, 1월 14일 19:00 - 15일 17:00

④ 내용

14일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한 후, 위구르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후에 위구르어로 현지화 시킨 게임들로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 때 우리가 한 게임은, 윙크 게임, 바보게임을 바꾼 아멘 게임이었다. 그 외에 따로 준비한 것은 후라이팬 오이나(놀이), 오쉬라그만(번데기 민족)등이 있었으나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다 할 수는 없었다. 이 후, 우리 팀에서 세 명이 간증 시간을 가졌다. 15일에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 때도 14일과 마찬가지로 위구르어로 번역되어 있는 찬양을 중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팀에서 두 사람이 복음과 하나님을 경

힘하고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한국에서 준비해 간 짜파게티로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라미르’의 생일 파티를 했다. 메테우로 소풍을 떠나 함께 썰매를 타고 놀면서 사진을 찍었다. 아이들과 청년들은 메테우에서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다.

##### ⑤ 평가 및 제언

- 원활한 교제를 위해서는 위구르어를 충분히 익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현지어를 최대한 배워간다면 실제로 친구가 되는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다.
- 예상치 못한 생일이 있어서 선물을 준비해야 했는데, 이번 경우는 미리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것으로 생일을 축하할 수 있었다. 혹, 미리 약속된 현지 사역지가 있고, 그 곳에서 현지인과 만날 약속이 있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선물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다. 선물은 한동대학교 기념품이나 한국을 알릴 수 있는 것이 좋지만 마음을 담은 것이라면 그 어떤 선물도 좋다.

## 2) 심방 및 복음전도

### (1) 칠릭 교회

#### ① 대상

칠릭 교회를 섬기고 있는 두 가정

#### ② 기간

1월 1일

#### ③ 내용

일시	시간	내용
1/1	16:00- 18: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인 심방</li> <li>① 일리야드 아스바르 씨(위구르 인) 집 심방. 부모님과 두 자녀가 살고 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만 어머니만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가족이 교회에 나오도록 권면 하기 위해 가정 방문. 우리 팀 중에서 세 사람이 간증을 하고, 찬양하고, 각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 본 뒤에 기도 했다. 기름밥을 먹으면서 아저씨와 함께 교제했다.</li> </ul>
	19:0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아이다, 아미나(위구르 인)의 집을 방문함. 이 가족은 부모님과 3남매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산다. 부모님은 선교사로 타 지역에 나갔다가 돌아오셨는데, 그 때 받</li> </ul>

		은 상처로 인해 아버지는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신다.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방문하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다. 차이 대접 받았다.
--	--	---

(2) 추&폴레비

① 대상

추교회와 폴레비 교회의 성도 및 그 지역의 믿지 않는 가정.

② 기간

1월 4일, 5일, 7일, 8일, 10일, 11일, 12일

③ 내용

일시	시간	내용
1/4	15:0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음전도</li> </ul> <p>폴레비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는 갈라와 싸샤가 살고 있는 집의 주인인 마리아 할머니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끈질긴 요청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 없는 삶을 택하겠다고 하셨다. 그 후 할머니 덕 맞은 편에 살고 있는 쿠르드인 가정을 방문했다. 직접적인 복음전도는 할 수 없었으나, 싸샤가 그 집의 막내 딸과 계속 교제 중에 있어서 그 가정의 어머니께 싸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부탁하고 돌아왔다.</p>
1/5	16:30-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음전도 및 교인 심방</li> </ul> <p>지난 여름 폴레비에서 사역하신 이상호집사님의 요청에 따라 위구르인 마르하밧 아주머니 덕을 방문했다. 남편이 함께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다. 부부가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다음에 다음 중선협 팀이 다시 방문할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마르하밧 아주머니가 복음을 능력 있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는 축복이 임해야 한다.</p> <p>폴레비에서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신 한 고려인 아주머니 덕을 방문했다. 그 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으며, 남편 위구르인 이민자르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아저씨는 알라를 믿으며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고 하셨다.</p>
1/7	1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인 심방</li> </ul> <p>아라이사슬기나 할머니(고려인) 덕에 방문. 자녀들과 함께 총 3대가 같이 산다. 집에서는 할머니 혼자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으셔서 권면하기 위해서 방문</p>



		<p>하였다. 할머니께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시고 꿈과 환상을 보셨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바쁘고 추워서 못나오신다고 하지만 더 이상 교회에 다니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머니를 축복하는 찬양을 하고 할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교회에 다시 나오시기로 약속했지만 결국 오르지 않았다.</p>
1/8	15:13-18:25	<p>• 교인 심방</p> <p>췌 근처 마을인 베르릭 마을의 스비에따 아주머니(고려인) 집을 방문하였다. 마을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췌 지역 사역자가 매 주 집에 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전반적으로 집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고 우울했다. 큰 아들을 잃은 슬픔을 마음에 묻어두고 가슴 아파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아주머니의 어머니와 다운 증후군인 딸 그리고 잃은 아들의 손녀와 또 다른 아들의 며느리, 손자가 함께 산다. 근처에 사돈이 살고 있어 그 분들도 이 집에서 같이 예배 드렸다.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에 믿는다고 대답은 했지만 참 기쁨은 느낄 수 없었다. 찬양 하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딸을 위해 한 명씩 1 대 1로 기도했다.</p>
1/10	14:20-16:00	<p>• 교인 심방(2팀으로 나누어서 함) 및 복음전도</p> <p>① A팀</p> <p>* 구성원: 이리나 사모님, 권선형, 강주미, 지나 집사님(통역자), 보레</p> <p>* 사역 내용</p> <p>췌 마을에 이고르 아저씨(고려인) 댁 방문. 2개월 된 딸과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췌 교회의 사역자가 바뀌기 전에는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했지만 한 번 상처를 입은 후에는 교역자가 바뀌었음에도 마음 문이 닫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아이가 태어난 걸 축하하며 기도해 주고 교회에 나오기를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했다. 교회에 왜 나오시지 않으시냐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사모님, 통역자 분과 논쟁이 붙었으나 16:00에 췌 교회에서 성도들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돌아와야 했다.</p> <p>② B팀</p> <p>* 구성 인원: 비사리온 전도사님, 김혜정, 이명혜, 클라라</p>

		<p>집사님(통역자)</p> <p>* 사역 내용</p> <p>비사리온 전도사님의 지인인 미트리 아저씨 댁을 방문했다. 아저씨는 비사리온 전도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을 미리 아시고, 3시간 동안 끊임없이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이유들을 나열하셨다. 결국 급기야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멈추고 10분 동안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다. 아저씨는 복음을 거절하셨다. 아저씨의 강박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 내리도록 기도했다.</p>
1/11	15:30-20:00	<p>• 교인 심방</p> <p>폴레비 마을에 있는 올라(고려인) 집을 방문했다. 지난 여름, 중선협에서 나온 단기팀에게 복음을 듣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으나 10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할머니와 어머니가 밖으로 다니는 것을 반대함으로 인해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교회에 다시 나올 것을 권면하기 위해 방문했다. 올라는 한 쪽 다리를 약간 절며, 오빠와 쌍둥이 형제가 있다. 어머니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 차이를 마시면서 교제했다.</p>
1/12	16:00-19:30	<p>• 교인 심방</p> <p>① 폴레비 교회 성도 엘자 할머니(고려인) 댁을 방문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 다 예수님을 믿지만 할아버지는 교회에 남자가 없어 부끄러워 나오시지 않으시기에 방문하였다. 할아버지께서 자리를 피하셔서 우리도 일찍 나왔다. 찬양하고 이 집을 위해 기도 했다.</p> <p>② 레라 할머니(고려인) 댁을 방문했다. 할머니와 아들 내외 그리고 손녀가 함께 살고 있다. 옆집 할머니와 손자가 놀러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지난 여름, 중선협 단기팀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할머니 혼자 예수님을 믿으신다. 믿지 않는 며느리와 이야기 하고 싶었지만 자꾸 자리를 피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이웃집 할머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교회에 다니시다가 이 곳으로 이사 온 후로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계신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 했다. 마지막 사역인데 이 때까지 사역 한 것 가운데서 가장 우리의 뜻을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팀</p>

		원 모두가 아쉬운 느낌을 가졌다.
--	--	--------------------

(3) 알마티(도르가스 모임집)

- ① 대상  
도르가스 모임집에 모이는 사람
- ② 기간  
1월 17~18일
- ③ 내용

일시	시간	내용
1/17	12:00-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땅 밟기 기도와 교인 심방</li> </ul> <p>둘 씩 세 팀으로 나뉘어 땅 밟기를 했다.(민영 자매는 몸이 안 좋아서 불참) 그 후에 스비에따 아주머니 댁을 방문했다. 위구르인이며, 아이가 세 명이다. 우리 팀에서 한 명이 간증한 뒤에 성도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다. 찬양하고 그 집을 위해 기도했다. 사실 우리가 그 집에 온 목적은 아주머니의 딸인 쏘냐를 만나는 것이었기에 딸의 기도제목을 듣고 함께 중보 기도했다.</p>
1/18	17:30- 20: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인 심방</li> </ul> <p>도르가스 모임집에서 청소년 사역을 도와주는 규젤(위구르인) 집을 방문했다. 세 자매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앞으로 위구르 민족 사역을 담당할 중요한 가정이라는 강 선생님의 설명이 있었다. 방문 목적은 규젤 동생인 굴랴를 보기 위해서였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교제했다. 우리 팀에서 두 명이 간증했고, 찬양하고 굴랴와 규젤의 언니 아누 그리고 규젤을 위해 다 함께 기도했다.</p>

# 제 5장

## 영적 보고서

## 1 카자흐스탄 위구르인들과 이슬람교

위구르민족 이름의 본뜻은 단결이다. 그만큼 이 민족은 민족 연합과 마을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원래 위구르인들은 중국의 위구르자치구가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소수 민족이었는데 1930년을 기점으로 카자흐스탄(당시의 소비에트 연방)으로 많은 숫자가 넘어오면서 카자흐스탄에 위구르인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선교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현재 카자흐스탄에 50만의 위구르인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중국에서 공산주의(사회주의)를 국가의 통치체제로 정하면서 모든 종교를 없앴던 일이 있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구르민족 가운데는 이슬람 사원을 남겨둘 만큼 위구르민족에게 이슬람교는 종교가 아닌 생활 그 자체였다. 이처럼 위구르 민족은 이슬람교와 그 문화 아래서 그들의 하나됨을 추구한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위구르인들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고 생활을 한다. 우리가 들었던 한 위구르 가정의 경우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8개월 동안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그 가정의 아저씨와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사실이 마을공동체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 사실이 공동체에 알려지면서 공동체로부터 고립이 되어 친구들과 친척과의 교류가 사라지게 되고, 마을을 떠나던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라는 협박의 말도 많이 듣게 되었다. 또 위구르인들의 대표적인 행사인 결혼식과, 장례식, 70, 80, 90세 기념행사들은 온 친척들과 마을사람들이 50~100명 정도 함께 모여서 행사를 하는데, 이러한 모든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아저씨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된 길이며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 공동체를 떠나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을 버리기로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예를 볼 때에 위구르 민족이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이슬람 아래 형성되어 있는 마을공동체이다.

## 2 도르가 공동체 소개(샤플릭)

우리가 만났던 선교사님께서는 위구르민족 사역을 하고 계셨다. 그 공동체는 재봉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도 하고 양육을 받기도 하며 예배하는, 그 중심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위구르인들의 공동체였다.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가난한 위구르사람들을 도울까 생각하다가 구제사업으로 재봉일을 선택하셨다. 과부와 이혼녀, 미혼모, 가난한 여성들에게 재봉일을 할 일감을 주기 시작했고, 선교사님이 받은 현금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었다. 처음에는 \$500을 이용하여 3개월 구제사업으로 시작을 하였으나, 이어지는 주문과 다른 사람들

의 요구에 의해 지금까지 일감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각 가정의 형편도 많이 좋아졌다. 사람들이 일감을 찾아서 모이고 일을 하는 가운데 관계가 형성되고, 공동체가 세워졌으며 그 가운데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이 공동체 가운데 조금씩 전해졌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몸이 아픈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었을 때 바로 응답을 받고 몸이 낫는 일도 있었고, 이들 안에 있던 깨어진 가정에 대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지금은 이 공동체가 세워 진지 5년 정도 지났으며 이제서야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이 공동체가 설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모임 집이 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모임 집에 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10~20분 의 시간이 걸린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었으며 이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또한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위구르의 깨어진 가정 안에서 주고받았던 상처들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어머니와 아이 사이의 진정한 사랑의 회복)되었으며, 그들의 아이들이 그 공동체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며 자유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

### 3 공동체 안에서 세워질 위구르 사역자와 위구르민족 복음화의 비전

우리가 이 공동체를 방문하였을 때 그 곳의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는 네 자매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네 자매들이 처음에는 전통적인 위구르 인이었고 이슬람의 영향아래 있었지만, 공동체를 통하여 이들 가운데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되고(구체적으로 할지 말지 고민)받고 선교사님께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이 꾸준히 성장되어 왔다. 그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된 기쁨을 알고 있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스스로도 놀랐다고 간증을 한다. 이렇게 성장한 그들이 결국 지난 여름에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며 중국 위구르 민족이 있는 곳으로 단기선교 여행을 갔었다.

이 자매들의 중국 단기선교 여행 간증을 들으면서 이 자매들을 통하여 신장 위구르 민족에게 복음이 쉽게 증거된 일들을 확인하였다. 아마도 그 이유는 비록 말이 조금은 다르지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가가기가 쉬웠기 때문인 것 같았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위구르 민족 내에서 같은 위구르 민족을 위한 사역자가 세워져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외국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가 많이 어렵던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 들어감으로 훨씬 수월한 복음전파가 이루어 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신 마음은 이러한 위구르 공동체 가운데서 사역자들을 세워서 같은 민족을 아버지께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바라본 위구르 민족 복음화의 비전이다.

#### 4 기도제목

- 1) 카자흐스탄에 도르가스 모임집 같은 공동체가 위구르 민족 안에 많이 세워지고,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 2)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자기민족(위구르민족)을 위해 떨 수 있는 위구르인들이 많이 일어나, 카자흐스탄의 위구르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위구르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 3)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깨어진 가정으로 인한 아이들의 상처, 과부와 이혼녀, 미혼모를 멸시함으로 받는 상처)이 온전케 치유되게 해 주세요.